



동우칼럼

젓가락은 음식 맛을 모른다

젓가락은 매일 음식을 집는다. 직접 음식에 닿아 있지만, 정작 음식의 맛은 전혀 모른다. 맛은 젓가락이 아니라 직접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우리로 사람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한다.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만나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상대를 평가하는 경우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편견은 진실보다 먼저 마음을 차지한다. 그러나 남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언제나 일부일 뿐, 진실은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 상담하다 보면 타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다. 그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을 직접 뵈고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소문이 얼마나 날조된 것인지 알겠습니다.”이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예수를 편견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와 보라”(요 1:46)고 했다. 직접 만나 보면 알게 된다는 뜻이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모다는 다른 제자들의 부활 증언만으로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서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20:28)라고 고백했다. 직접 체험은 남의 말보다 강하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만나 보라.
직접 대화해 보라.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남의 말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
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
는 교회나 구역을 인수할 때 사람은 인수인
계하지 말라고 한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아.’, ‘저 집사는 이러저러해서 애물 뎡어
리야.’ 하고 전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미 편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젓가락은 음식 맛을 모른다.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안다. 남의 이야기나 남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경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
고가 와서 밝히느니라”(잠18:17).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우리는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 모여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알기 쉽고 귀한 지혜의 말씀을 손에 쥐고 기쁨으로 성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한가 싶을 정도로 다시 주일에 종합선물 세트로 압축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녁뿐 아니라 오전까지 직접 설교하시며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셨습니다. 그중 단 한 말씀이라도 잡아서 제발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시요,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임계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아무리 좋은 약도 각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잘 듣는 약이 다른 이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각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임계점이 다르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열납되었지

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귀신들은 흥해 앞바다까지 쫓아왔던 애굽 군대처럼, 비록 바다에 수장될 운명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휘방하려 끝까지 쫓아온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결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목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며 가르치시는 것도 바로 이것,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고 알기 쉽게 가르친 말
 씀이라도 듣고,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영상으로 보여
 주시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시대 목사님도 4부예배 마무리 말씀을
 통해 다시 뜻을 박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42년 목회 사역을 통해 연구
 하고 경험하신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기
 쉽게 입에 떠 넣어주듯 가르치시는데,
 그럼에도 간혹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글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혹은 ‘왜 하나님
 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
 르겠어요.’ 말인즉슨 ‘실천을 해봤는데 소
 용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스스로 판단하

만,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바사국 군대에 막혀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21일 만에야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이십 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단 10:12~14).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면 안된다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줄 알고자 하느냐 ~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2:17~26).

실천합니다. 목사님을 본받아 행동하는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
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
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날짜: 2026년 9월 4일(금), 오후 2시

장소: 아산 이순신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아산 이순신체육관 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3:18~2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선물 보따리 하나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선물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와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한데 모은 종합 선물세트입니다. 이 선물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원리와 지혜를 붙잡고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장담하건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나고, 심은 대로 낫니다(갈6:7). 농부가 벼씨를 심어 벼를 수확하고, 배추씨를 뿌려 배추를 거두듯이 말입니다.

하늘, 곧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하늘에서 물질이 납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6:20).

‘아! 또 돈 얘기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나사로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누리고 베풀며 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뭄이 심해서 농부들이 애가 탔었지요? 벼도 그렇고, 채소나 과일들이 다 말라 죽어가니까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 갔습니다. 농사란 이처럼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심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6:19). 무조건 대풍입니다. 최소 30배요,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첫 번째 원리는 심어야 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짓는 걸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밭에뿐 아니라 밭두렁에까지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곳에 뿌린 것도 다 결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다른 집보다 더 거두게 되지요. 그럼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고후9:6). 원리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농사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농부가 씨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미리 예물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고후9:5).

또 하나, 역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내다’라는 말은 ‘자주 드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쁨 마음으로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농사를 짓는 농부는 논밭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일을 사랑하면 자주 논밭에 나가 살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즐겨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당신을 사랑하사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부귀도,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 것인데 그걸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잠8:18)?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
을 보
십니

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였고, 과부 두렵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눅21:3~4).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말3:7~8). 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빌4:18).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십니다(빌4:19). 두 번째 선물 보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대학입시가 걱정이었습니까? 취업을 준비를 다 해놓았다면, 결혼 준비를 다 해놓으면, 노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

면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하고, 헌신하여 준비했다면 죽음 다음의 세상이 무슨 걱정이었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실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유례없는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칠 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했는데,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이 준비했습니다(창41:47~49). 그래서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최대 부국으로,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이며, 심지어는

못까지도 다 준비했고, 석수와 목수 등 인력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저축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집은 그림의 떡이고, 아름다운 황혼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자에게 건강은 그림의 떡이고, 지금 세상과 짝하는 자에게 사후의 영광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지금, 살아 있는 지금, 매사 철저히, 넉넉하게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보따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에의 줄을 풀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을 깨는 것이 아니겠느냐”(사58:6).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항력의 일이 발생했을 때, 사면초가일 때 금식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새끼가 밥 안 먹고 울면서 사달라고 조르면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가 밥도 안 먹으면서 문제 해결 달라고 하는데, 병

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앞에서 금식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침략이 있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뽕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쳤습니다(삼상7:3~12).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운명에 놓였을 때 에스테르와 모든 유대인들이 사흘 금식합니다(에4:15~16).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목줄을 죄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걱정이 있을 때도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기 시작했더니(느1:4),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화하사 적극적으로 돕게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금식해야 합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굶은 배움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시35:13).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굶는다고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오락을 삼가고, 남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지도 말고(사58:3), 싸워서도 안 되며(사58:4), 가난한 이웃을 먹이고 입히며, 금식 중 찾아온 친척을 괴롭히지 않고 대접해야 합니다(사58:7).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슬픈 기색 없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마6:18).

문제의 원리를 알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58:8~9)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흉악의 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선물 보따리 어떠셨나요? 그러나 선물을 받아놓고 방치하면 쓰레기만 될 뿐입니다. 활용해야지요. 배움의 끝은 실천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여 이 땅과 내세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부의 복리화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자신의 삶에 상당히 성공한 후에도, 다른 누군가 더 빨리 돈을 벌고 있는 것에 몹시 신경을 쓰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찰리 멩거가 말했습니다.

보유한 주식이 급등한 덕에 부자가 된 남을 보고 생기는 유혹을 무시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FOMO)에 빠지면, 자신의 부가 파괴될 수 있지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이 투자 결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과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순자산을 크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는가, 혹은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성공투자의 본질은 가능한 적은 리스크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열망하지만, 그 청사진은 부족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 자본을 복리로 불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만, 사회적, 지적 자본도 복리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사실은 간과하지요. 자신에 투자하고,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복리효과는 항상 작동하며, 시간은 복리의 가장 훌륭한 친구지요. 결국 투자에서 부를 창출하는 열쇠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찍 좋은 저축습관을 들이지 않는 바람에 부담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상의 8번째 경이이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벌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리로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항상 장기적인 게임이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복리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귀결되었지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나는 열한 살 때부터 시작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매우 긴 언덕에서 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경우는 56년의 언덕이었다. 잘 뭉쳐지는 눈덩이로 굴리는 것이 중요하고, 시작할 때는 작은 눈덩이면 된다. 사실 나는 그 작은 눈덩이를 <워싱턴포스트>를 배달하면서 손에 쥐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끈장은 일들을 계속하면 더 좋다.”

1명으로 시작하여 42년간 한결같은 기도와 노력으로 이루신 목사님 사역의 결과를 봐도 복리효과는 재물, 지식, 세상원리, 묵회, 인생 모두에 동일합니다.

이미경 권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영생에 이르는 길 ::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신체 일부냐, 영적 폐기물이나

몇 주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어쩔 이렇게 좋으세요? 비결이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저의 간증을 들려드렸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얼굴을 뒤덮기 시작한 여드름은 청소년 시절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울긋불긋, 울퉁불퉁한 얼굴이 창피해 고개를 꼭 숙인 채 다녔던 저는, 깨끗한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드름이 많았던 아빠의 피부와 넘치듯한 얼굴형까지 닮은 저는, 타고난 피부 미인인 엄마를 닮지 않았으며 원망 섞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셨다고 합니다. “주님, 진실이 얼굴이 계란 흘랑 벗겨놓은 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손으로 제 얼굴을 그리시며 기도하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이 된 뒤에도 여드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넓고 각진 얼굴형도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보실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너는 안

돼도, 나는 돼!”라고 말씀하시며, ‘계란 흘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한결같이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십 대 중반을 넘어 설 무렵, 어느 순간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여드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얼굴형도 가름해져, 과거의 제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성형수술을 한 거 아냐?”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얼굴을 ‘계란 흘랑’으로 변화시켜주신 것입니다.

가끔 외모로 고민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 간증을 들려드리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위해 ‘계란 흘랑’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기도하신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현실의 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십수 년 동안 제가 멋진 얼굴로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기적을 맞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김진실 사모

교회 입구에 과자 하나가 떨어져 깨져 있는데, 개미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카맣게 바글거린다. 한참을 눈여겨 보았는데 개미들은 남의 것을 탐내지도, 빼앗지도, 빈둥거리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일에 열중이다. 그렇다고 서로 충돌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과자 부스러기를 옮겨갔다.

성경 잠언에는 미물만도 못한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한다(잠6:6). 개미들은 누가 시키지도, 감독하지도 않는 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먼저는 성실함을 배워야 한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골3:23).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매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김상욱 목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신체 일부냐, 영적 폐기물이나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난 줄 알고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잘라낸 ‘의료용 폐기물’을 실수로 잘못 배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의 다리를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다리는 엄연한 그 사람의 고귀한 일부였으나 신체에서 잘려 나가는 순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의료용 폐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15:5~6).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똑같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기만 해도 복을 받고 능력을 받으며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 폐기물이 되어 말라비틀어질 운명일 뿐 아니라 결국 불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결실하는 가지였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순간부터 영적으로 점점 말라갔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도, 아둘람 굴에서도, 참담한 도망자의 신세일지라도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눈물겹게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혈떡였나이다”(시 119:131).

총회장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주 명확합니다. “개새끼는 개, 소 새끼는 소, 사람의 자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통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예수중심 신앙의 진수입니다.

문천명 전도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청년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노량진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기반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기도하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업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외국인들이 청년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올해도 외국인 전도를 이어가며 수련회를 준비하던 중, 영어 통역을 위해 임윤석 통역관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장 일정으

로 참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상황을 말씀드리자 목사님께서 직접 통역관님께 연락해 통역을 맡아주시도록 해결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마다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참석하기로 했던 외국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참석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가 들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중보기도를 부탁드렸고, 남은 나흘 동안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했고,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영혼을 수련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테세마 형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세마 형제를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테세마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복음교회의 초청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 교회의 예배와 집회에 참석했지만, 제 마음에는 영적인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노량진에서 전도하고 있던 예수중심교회 청년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

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 수련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예수중심교회의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중심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워 주시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열매는 외국인 전도팀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함께 전도하고 섬겨주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테세마 형제의 소망처럼 에티오피아에도 예수중심교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서울 청년부 강연주

:: From Internet ::

하나님을 팝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다.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주인은 60이 넘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사서 무얼 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

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애야, 삼촌은 하나님밖에 못 구한단다.”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를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이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잘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요?”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단다, 애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올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쓴 살갗이 병원으로 뛰어갔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

게 되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삼촌은 나중에 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 가게에서 적당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이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다. 가게 접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 주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주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수련회에서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대학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외국인 선교팀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모로코,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외국인 10명을 케어하는 일을 하였는데요. 제가 외국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 기도원 내려갈 때부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소통이 안 되면 어찌지, 요청 사항에 협조 안 하면 어찌지? 외국인들과 한 방에서 같이 자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이틀 밤을 같이 보내지?’ 마음 한 켠에 이런 걱정들이 없진 않았지만, 그 모든 걸 잊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론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자유분방하고, 예배 시간을 힘들어해서 예배 중 들락날락하며, 무리와 떨어져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기에,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성령세례 받을 때 단 위에 올라가 성령을 받았습니 다. 외국인들과 선교팀 전도사님들과 같이 저도 단 위에 올라가 손 얹고 같이 기도했었기에 내려와서 물어봤거든요. 어땠는지. 혹시 특별한 걸 경험했는지 등으요. 그러자 그가, 그 위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 선교팀 분들이 같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예배 전 찬양할 때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방을 쓰며 알게 된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이불 덮어쓰고 한참을 기도부터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으요. 몸도 고되고 안 쓰던 영어도 쓰느라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외국인 선교팀을 비롯해 수련회를 아름답게 준비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